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85
AUG 20 2021

발간년월 2021년 8월 20일(통권 제185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 쿠릴 열도 관세자유구역 조성사업 일본 반발
- 러시아 페스코, 한국-유럽 구간 철도 운송 시작
- 러시아 타간로크 항에 곡물 환적 복합단지 건설
- 러 교통부, 교통·물류 디지털화 전략 본격 추진
- 러 교통부, 내년 1월부터 전자 운송장 전면 도입
- 러, 기후 변화로 전례 없는 산불·홍수 피해 발생

주요 통계

- 2021년 7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주요 동향



러 쿠릴열도 관세자유구역 조성사업에 일본 반발

■ 러시아 총리 쿠릴열도 방문, 관세자유구역 설치 구상 발표...일본은 반발^{a)b)}

-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7월 26일 쿠릴열도의 이투루프섬을 방문해 이곳에 관세자유구역(Free Customs Zone)을 설치하는 구상을 밝혔다
- 푸틴 대통령은 이에 앞서 7월 23일 미슈스틴 총리가 “유례없는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 예고했으며, 총리 방문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이 같은 러시아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보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머지않아 러시아 정부에 항의할 것”이라는 비판 입장을 밝혔다
- 8월 11일, 일본의 제안으로 양국 외무장관의 전화회담이 진행되었으며, 일본 외무장관(모테기 도시미쓰)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 러시아, 쿠릴열도 관세자유구역 조성 준비작업 9월 1일까지 완료할 계획^{c)}

- 알렉세이 체쿰코프(Alexei Chekunkov)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8월 17일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Izvestia)와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은 추진 일정을 밝힘
- 쿠릴열도 관세자유구역을 위한 준비를 9월 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구체적 규정에 대해서는 동방경제포럼(9.2~4)에서 발표할 예정
- 투자자들에게 모든 세금의 장기간 완전 면제, 사회보험료 인하(7.6%) 혜택을 제공하고 관세 면제구역도 도입할 계획
- 알렉세이 장관은 일본 투자에 대한 질문에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중요지역(Integral Part)이며, 다른 모든 국가의 투자와 마찬가지로 일본 투자를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

■ 러시아 실효 지배하는 쿠릴 열도 4개 섬 영유권을 두고 러일 오랜 갈등^{d)}

- 쿠릴열도(일본명: 치시마 열도)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늘어선 56개 섬, 1300km 지역을 지칭

- 이 지역은 원래 아이누 족 등의 생활 터전이었으나 18세기 이후 러시아와 일본이 본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영유권 갈등이 발생
- 1855년 러·일 통상우호조약에서는 4개 섬을 일본 영토로 인정하였으나 2차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에서 일본의 권리 포기로 소련이 실효적으로 지배중임

그림. 쿠릴열도 4개 섬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190219134400080>

진희권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hkjin@kmi.re.kr/051-797-4706)

참고자료

- [https://www.intellinews.com/russian-plan-for-free-trade-zone-on-disputed-islands-angers-japan-216490/\(2021.8.18 검색\)](https://www.intellinews.com/russian-plan-for-free-trade-zone-on-disputed-islands-angers-japan-216490/(2021.8.18%20검색))
- [https://tass.com/politics/1317805\(2021.8.18 검색\)](https://tass.com/politics/1317805(2021.8.18%20검색))
- [https://tass.com/economy/1326745\(2021.8.18. 검색\)](https://tass.com/economy/1326745(2021.8.18.%20검색))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36XV7KZ\(2021.8.18. 검색\)](https://www.sedaily.com/NewsView/22P36XV7KZ(2021.8.18.%20검색))

러시아 페스코, 한국-유럽 구간 철도운송 시작

■ 러시아 선사 페스코(FESCO)의 유럽행 철도화물 한국에서 출발

- 러시아 선사 페스코(FESCO)는 최근 Trans Baltic Bridge(FTBB) 통과화물의 신속한 운송 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복합화물운송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면서 각종 장비와 태양광 패널, 조명 장비 등이 실린 62개의 FEU(40피트 컨테이너)가 페스코의 정기항로를 통해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 무역항으로 운송되었음
- 블라디보스톡 무역항으로 운송된 컨테이너들은 7월 2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한 화물철도에 실렸고, 이후 페스코사 서비스를 통해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항구로 운송될 예정임
- 이 구간의 예상 운송 기간은 약 30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노선보다 10~14일 가량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됨
- 페스코는 최근 들어 아태지역 국가에서 출발하여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복합운송 연계 운송 서비스 노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러시아 물류·철도공사와 협력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트랜스-시베리아 랜드브릿지(TSLB)” 서비스 외에도 2021년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블라디보스톡 항만-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유럽국가로 이어지는 운송 서비스(FTBB)를 시작한 바 있음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러시아 타간로크 항만에 곡물 환적 복합단지 건설

그림. 타간로크 항만 전경



자료: <http://www.morvesti.ru/news/1679/91072/>

■ 항만 북쪽 방파제 지역에 연 27만 곡물환적단지 건설

- 러시아연방 국가검사기관(Glavgosexpertiza)은 타간로크(Taganrog) 항만의 범용 화물 환적 단지 건설 사업 계획서 초안 및 기술적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승인하였음
- 이 건설 사업은 바실리 골루베프(Vasily Golubev) 로스토프 주지사와 유리 쿠릴로프(Yuri Kurilov) “해양곡물터미널” 유한책임회사 이사장이 2019년 소치에서 개최된 ‘러시아 투자 포럼’에서 타간로크항 범용 화물 환적 단지 건설 협약에 서명함에 따라 추진되었음
- 이 범용 화물 환적 단지는 운송 연계성을 증진시키고, 돈(Don) 지역의 식품 수출 발전 가능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간 27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또한 복합단지가 건설될 경우 타간로크 항만 수역을 파도, 얼음 및 모래 퇴적물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곡물 환적 복합단지 건설 사업은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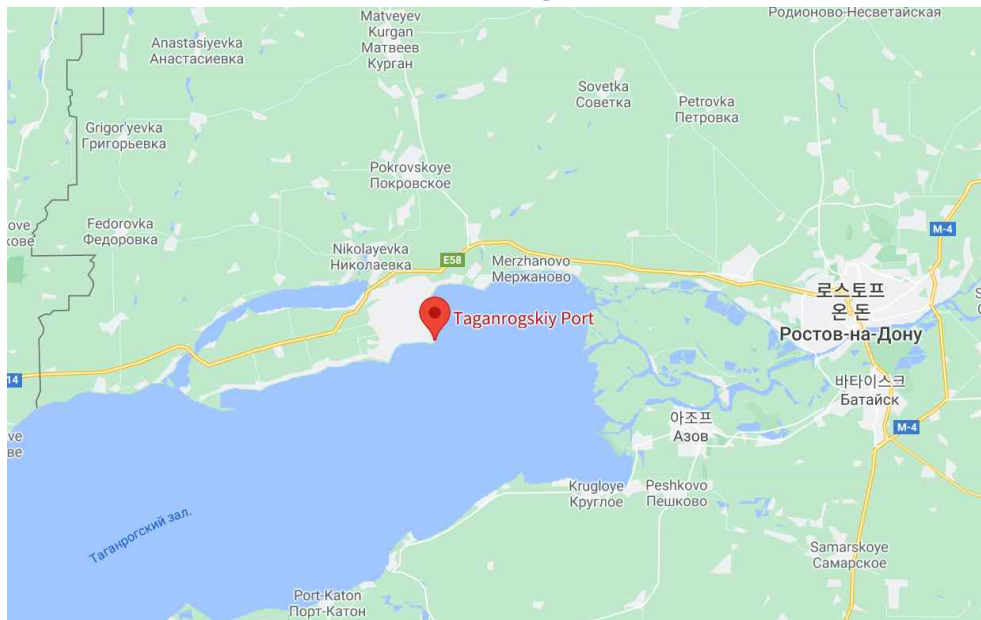
- 이 같은 건설 사업에 대한 초안 문서는 ‘운송 사업 및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유한책임회사가 진행하였고, 건축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해양 곡물 터미널’ 유한책임회사가 처리하였음
- 복합단지 건설과 관련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북쪽 방파제 재건, 화물 계류장 2개 설치, 기타

수력 이용에 관한 시설물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항만 수역 내측 10번 부두에 준설작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11번 부두의 준설작업이 진행될 예정임

■ 수출화물 환적 많은 타간로크 항 화물처리량 증대 예상

- 타간로크 항만 물동량은 연간 평균 300만 톤에 달하며, 주요 화물에는 곡물, 석탄, 석유제품 등이 있음
- 2021년에는 항만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지난 5개월간 항만 환적 화물량은 122만 톤에 이르렀는데, 이 같은 수치는 2020년 동기 대비 16.2% 오른 것임
- 타간로크 항만은 아조프 해에서 가장 오래된 항만으로 아조프 및 로스토프 나 도누 항만보다 항만물동량은 적은 수준이지만 주요 수출 화물을 환적하는 장소로 경제적 가치가 높아 곡물 환적 복합단지 건설 후 타간로크 항만의 수출용 화물처리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타간로크 항만 위치



자료: 구글 지도 검색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 <http://www.morvesti.ru/news/1679/91072/>(2021.8.18. 검색)
- <http://www.morvesti.ru/news/1679/91094/>(2021.8.18. 검색)

러 교통부, 교통·물류 디지털화 전략 본격 추진

■ 드론, 운송 보안, 디지털화는 러시아 운송 시스템 디지털 전환의 핵심

- 2021년 6월 1일, 러시아 교통부 공공 위원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으로 운송 및 물류 비용의 절감, 인구 이동성 증가, 도로 사고 감소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논의되었음
- 해당 프로젝트는 정부 위원회의 승인과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았으며 8월 안에 재정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준비한 후 프로젝트 예산 출처에 대한 제안을 공식화할 예정임
- 디지털 운송 및 물류 협회, 주요 산업 회사와 IT 개발자가 모든 영역에서 전략의 로드맵을 개발할 계획임
- 프로젝트의 핵심 영역은 무인 차량의 도입, 원활한 화물 물류로의 전환, 전자 문서 관리의 사용, 디지털 트윈의 사용, 운송 보안의 디지털화 및 운송의 디지털 관리로 총 6가지의 영역이 설정되었음
- 구체적인 주요 목표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AI 기술을 적용한 교통 시설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교통 흐름 시뮬레이션 기술과 생체 인식 보안 검색대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2030년까지 모든 종류의 운송 시스템에서 드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음
- EAEU 국가와의 국경 지점에서 화물 운송 등록 절차의 디지털화로 화물 거래량을 10배 증가시키고 서비스형 미디어(MaaS; Mobility as a Service) 기술로 도시 내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감소와 승객의 이동 속도를 37%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최근 고도로 무인화된 차량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디지털 문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러시아 두마가 조만간 검토할 예정임
- 2021년 북극 지역에 무인 트럭을 출시할 예정이며, 2023년 모스크바의 철도인 '모스크바 중앙 서클(MCC)'을 따라 무인 열차인 '라스토치카'(Lastochka)가 운행을 시작할 예정임
- 러시아 교통부 차관인 키릴 보그다노프(Kirill Bogdanov)는 해당 전략의 주요 목표가 교통 시스템의 안전성, 서비스를 개선해 시민과 기업 모두의 물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러시아 디지털부 및 기타 부서, 디지털 운송 물류 협회, 주요 운송 기업 및 IT 기업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며, 현재 M-11 네바(Neva) 고속도로와 무인 항공기 및 자율 철도 운송에서 무인 물류 회랑 건설 그룹이 구성되었다고 언급함

참고자료

- a) <https://ru-bezh.ru/gossektor/news/21/06/02/bspilotniki-czifrovizacziya-transportnoj-bezopasnosti-i-logisti> (2021.8.14. 검색)
- b) <https://ru-bezh.ru/gossektor/news/21/07/16/mintrans-rossii-razrabotaet-dorozhnuyu-kartu-realizaczii-strateg> (2021.8.14. 검색)

러 교통부, 내년 1월부터 전자운송장 전면 시행

■ 운송장의 디지털화를 통해 화물 운송 속도 2배까지 증가 가능^{a)}

- 비탈리 사벨리에프(Vitaly Savelyev)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전자운송장 도입 관련 법안 마련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올해 말까지 러시아 연방 정부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 사벨리에프 장관에 따르면 도로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의 90%가 디지털화될 것이며, 2024년까지 모든 물품 운송 관련 서류들이 전자화된다면 현재 1일 약 300km인 화물 이동 속도가 1일 600km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자운송장 도입은 700만 명 이상의 운송 생산과정 실질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배제되어 러시아 연방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임
- 향후 모든 유형의 운송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서류를 공유하기 위해 일원화된 정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러시아 국내를 넘어 EAEU 국제교통회랑을 통한 원활한 복합물류망 발전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임
- 2022년 1월부터 도로 운송을 통한 모든 화물운송과정 참여자들은 러시아 교통부가 마련한 국가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전자운송장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러, 기후변화로 전례 없는 산불·홍수 피해 발생

■ 시베리아 지역 이상 고온으로 산불 지속, 지금까지 1만5천km² 이상 불타^{a)b)}

- 러시아 항공산림보호청(Aerial Forest Protection Service)은 6월 말부터 시베리아 지역 곳곳에서 241건의 산불이 발생해 8월 17일 현재 72건이 진화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산불로 8월 17일 현재 약 1만 5,799km²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러시아 8개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음
- 산불 피해가 가장 심한 사하공화국 야쿠티아에서는 약 1만 4,256km²의 산림이 불탔으며, 약 150메가톤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이는 주요 석유 생산국인 베네수엘라의 2017년 전체 화석 연료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
- 지역 언론은 야쿠티아 지역의 여름 날씨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덥고 건조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였음

그림. 확산 되는 러시아 산불



자료: <https://news.join.com/article/23879726>

■ 극동 지역은 홍수로 145개 마을에서 2만 4000명 넘는 이재민 발생^{c)d)}

- 러시아 극동 4개 지역(아무르, 바이칼, 하바롭스크, 유대자치 지역) 홍수 피해로 145개의 마을에서 3000채 이상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으며, 교량 102개, 철도 7개 구간, 고속도로

950km 파손

- 러시아 정부는 홍수 피해로 집을 잃은 주민에게는 10만 루블(약 159만원), 생필품을 잃은 주민들에게는 5만 루블(약 79만 5천원)을 지급
- 푸틴 대통령은 8월 14일(현지 시간) 대책회의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자연 재해”라며 산불과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그림. 러시아 극동지역 홍수



자료: <https://tass.com/emergencies/1324599>

진희권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hkjin@kmi.re.kr/051-797-4706)

참고자료

- <https://tass.com/emergencies/1326775>(2021.8.18 검색)
- <https://www.intellinews.com/far-eastern-yakutsk-city-under-threat-from-unprecedented-forest-fires-216229/>(2021.8.18 검색)
- <https://tass.com/emergencies/1324599>(2021.8.18. 검색)
- <https://tass.com/russia/1325905>(2021.8.18 검색)



주요 통계



표. 2021년 7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0/2021 증감율
극동지역	13.48 (+7.2%)	5.74 (-5.1%)	19.22	+2.8%
북극해	2.91 (+1.6%)	5.57(-1.2%)	8.48	-0.4%
발트해	10.3 (+6.6%)	10.57 (-5.7%)	20.87	-0.3%
아조프-흑해	21.64 (+10.4%)	11.51(-1.2%)	22.88	+3.5%
카스피해	0.16 (-32.9%)	0.38 (-0.9%)	0.54	-14.6%
합계	36.98(+7.1%)	33.77(-3.3%)	70.55	+1.5%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 a) <https://portnews.ru/news/316908/>(2021.8.14. 검색)
- b) <https://portnews.ru/news/315455/>(2021.8.14. 검색)

표. 2021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255,992.2	68,996.9	1,479.9	1,414.0	257,472.1	70,410.9
25-27	광물 제품	3,169,535.8	30,354.4	62,729.7	79,648.8	3,232,265.6	110,003.2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2,842,832.9	29,555.4	363.3	0.92	2,843,196.1	29,556.3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4,936.9	72,139.6	1,278.9	1,063.0	6,215.8	73,202.6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17.5	2,051.4	100.3	8.0	117.7	2,059.4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136,604.0	9,183.8	1,578.0	6.3	138,181.9	9,190.1
50-67	섬유·섬유제 품 및 신발	708.1	42,827.8	154.6	624.7	862.7	43,452.6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53,849.9	83,143.2	1,379.7	4,372.1	55,229.6	87,515.4
84-90	기계류	24,350.1	453,538.0	6,521.2	2,728.9	30,871.3	456,266.9
68-71, 91-97	기타	385,687.6	57,114.5	77,273.6	290.3	462,961.2	57,404.8
	합계	4,031,682.1	819,349.6	152,495.9	90,156.2	4,184,178.1	909,505.8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8.19. 검색)

표. 2021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02	냉장수산물	371	469.9	-	-	-	-	-	-	370.5	469.9	-	-
0303	냉동수산물	74,588	103,218.3	-1,061	-4,916.8	27	35.7	-	-	74,614.8	103,254.0	-1,061	-4,916.8
03031	연어	7	54.6	-	-	0	0.0	-	-	6.7	54.6	-	-
030331	광어	445	2,441.4	-	-	-	-	-	-	444.6	2,441.4	-	-
030332	가자미	1,371	1,203.9	-	-	-	-	-	-	1,370.6	1,203.9	-	-
030339	기타 넙치류	2,188	1,858.1	-	-	-	-	-	-	2,188.3	1,858.1	-	-
030351	청어	7,736	5,752.3	-	-	0	0.0	-	-	7,735.6	5,752.3	-	-
030363	대구	7,665	20,157.4	-	-	-	-	-	-	7,665.3	20,157.4	-	-
03036 70000	명태	29,977	34,609.2	-	-	27	35.7	-	-	30,004.1	34,644.9	-	-
03038 93	농어	16	46.6	-	-	-	-	-	-	16.4	46.6	-	-
030391	알류	4,241	78,804.1	-	-	-	-	-	-	4,240.7	24,538.1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1,127	1,775.8	-	-	-	-	-	-	1,126.7	1,775.8	-	-
0304	생선 필레	8,944	29,952.6	-3,353	-10,084.0	26	63.0	-	-	8,969.8	30,015.6	-3,353	-10,084.0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13	37.5	-289	-489.9	0	0.0	-	-	12.5	37.5	-289	-489.9
0306	갑각류	7,724	170,943.8	51	551.8	-	0.0	-	-	7,724.0	170,943.8	51	551.8
030614, 030633, 030693	게	6,805	161,672.7	-	-	-	0.0	-	-	6,805.2	161,672.7	-	-
0307	조개류	2,261	6,599.8	-	-	2	8.9	-	-	2,262.7	6,608.7	-	-
03072	가리비	856	2,019.9	-	-	-	-	-	-	855.9	2,019.9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1,207	3,171.8	261	277.0	2	8.9	-	-	1,209.0	3,180.7	261	277.0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693	2,980.4	-	-	0	0.0	-	-	692.5	2,980.4	-	-
03081	해삼	66	365.4	-	-	0	0.0	-	-	66.0	365.4	-	-
03082	성게	627	2,615.0	-	-	-	-	-	-	626.5	2,615.0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8.19. 검색)